



3.1운동과 구약성경의 구속사적의의*

김회권(승실대)

1. 서론

올해는 3.1기미만세독립운동 100주년이 된다. 1910년 한일병탄 10년만에 일어난 기미삼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1운동은 1919년 3월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일어난 학생중심의 대규모 시위 사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의 1919년 3-5월간에 걸친 집중적인 싸움을, 전체적으로는 약 1년간에 걸쳐 일본·중국·소련 연해주·미국 등의 해외교포들의 운동까지를 포함한 거족적인 항일 독립운동이었다. 숱한 사상자와 피검자, 인명·가옥의 손실을 내었지만, 우리 민족은 한·일병탄 10년만에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이후로 치르게 될 항일 민족독립운동의 본거지

* 이 논문은 2018년 10월 19일 기독교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를 구축했고 해방될 때까지 27년간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해 왔다. 일제 식민지 지배 36년의 역사는 단순히 절대적인 일제의 식민침략에 속수무책이었던 ‘죽은 역사’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잠자던 민족정기를 크게 진작시키며 단련시키는 ‘항일 민족독립운동사’였다.

에드워드 헬리트 카(E. H. Carr)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부단한 대화이며 좀 더 정확하게는 과거와 역사가가 그리는 미래에 건설된 이상사회와의 대화’라고 규정한다.¹⁾ 오늘 우리가 ‘역사’라고 불러내는 ‘과거’는 ‘미래에 우리가 구축할 이상사회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기미독립만세운동은 우리나라가 꿈꾸는 ‘오래된 미래’상을 보지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기미독립만세운동이 분출했던 민주공화제적 집체적 혁명열기를 목말라한다. 우리는 민족의 적대적 분단체제를 녹여주고 우리 겨레가 세계평화를 건인하는 미래를 꿈꾸는 3.1운동같은 해방적 열기를 회구한다.

이 글은 ‘3.1운동의 역사가 단지 기독교인들이 주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향과 운동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중심논지를 뒷받침하면서 삼일독립운동의 의의를 탐구한다. 먼저 기미독립만세운동 사건 자체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기미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사상을 검토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기미년 삼일독립운동의 구속사적 의의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3.1운동에 대한 평가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며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글 또한 삼일운동을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시론(試論)이다.²⁾ 하지만 이

1) “나는 지난 강연에서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오히려 역사란 과거의 사건들과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미래의 목적들과의 대화라고 말했어야 했을 것이다”(E. H. 카, 『역사란 무엇인가』, 김택현 옮김 [서울: 까치, 1997], 186). 원제는 Edward H. Carr, *What is History?*(Cambridge: Univ. of Cambridge Press, 1961).

2) 3.1운동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처음으로 불거진 것은 1946년 삼일절 기념식이었다. 좌파(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당)가 주도한 “3.1절 기념투쟁위원회”(“3.1축”)와 한민당과 국민당 등 우파가 주도한 “기미독립선언전국대회준비위원회”(“기미축”)는 삼일운동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했다. “기미축”은 삼일운동의 핵심을 비폭력론이라고 보았고 “3.1축”은 민중주도론을 강조했다(임경석, “해방직후 3.1운동 역사상의 분화,” 『사림』, 63(2018년 1월), 105-130). “3.1축”은 3.1운동이 민족자본가계급이 자력이 아니라 외력에 의해 독립하려는 망상을 가져 실패한 혁명이라고 본다. 삼일운동을 주도한 것은 인민대중이었다는 것이다(118-119). 또한 1947년에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의 3.1

글이 무릇 보편 역사를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보려는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Wolfhart Pannenberg)의 주장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판넨베르크가 하나님의 의도는 신현현(theophany)을 목격한 사람이나 특별히 영적 개안을 한 사람에게만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앙고백적 역사와 실증주의적 역사를 나눈 게르하르트 폰라드(Gerhard von Rad)나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의 이원론적 역사 이해를 비판하며 하나님의 계시는 단지 역사 속에 혹은 역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한다. 다만 역사가 하나님의 행동을 드러내는 통로인데 다만 하나님의 의도의 완전 계시는 이스라엘 역사 단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았고 나사렛 예수에게 와서야 일어났다고 주장한다.³⁾

오히려 이 논문이 말하는 ‘구속사’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속(救贖) 활동을 구약성경의 역사가들(신명기사가와 역대기사가)이 기술한 방식으로 정리한 이스라엘 역사(구약구경[창-왕하]와 역대기상-에스라-느헤미야)를 가리킨다(출 3:6-13; 신 26:6-11; 수 24장; 시 78; 103:6-22; 시 135-136편 등). 구약성경의 역사가들은 하나님의 구원행동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역사’ 속에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났다고 전제하며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그것은 신앙고백적 역사이기 때문에 설교문처럼 읽힐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의 구속사라는 개념으로 구약성경을 해석하려고 했던 학자들이 18세기 독일 경건주의 신학자들인 요한네스 토비아스 베크(Johannes Tobias Beck), 요한네스 크리스찬 콘라드 폰 호프만(J. C. Konrad von Hoffmann) 등이었다. 이 경건주의적 구속사 이해를 계승했던 사람들이 20세기 중반의 학자들이 미국의 조지 어니스트 라이트(G. E. Wright)와 오토

운동 폼하발언도 유명하다. 3.1운동을 과대평가하며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우익반동들이며 3.1운동의 법통을 이었다고 주장하는 임시정부 사람들을 조선기충민중과는 하등 연락도 없는 겉대기라고 비판했다(이정 박헌영 전집편집위원회편, 『3.1운동의 의의와 그 교훈』(1947년 6월 18일), 『이정 박헌영 전집』 2권(2004), 574).

3) Wolfhart Pannenberg, *Revelation as History* (trans. David Granskou;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9), 125-131, 135-139.

파이퍼(O. Piper) 등이었다.⁴⁾ 그런데 이 구속사학과 학자들의 해석에 수정을 가한 인물이 독일의 게르하르트 폰라드였다. 그는 신앙고백적으로 정리된 역사와 실제로 일어난 역사 자체의 간격을 인정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주요 통로가 ‘객관적 역사적 사건들’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며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해석적 말씀을 통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⁵⁾ 이 논문은 게르하르트 폰라드가 말하는 의미로 구속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1독립만세운동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활동으로 인식되거나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보려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성적 인식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활동으로 고백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반보편의 역사 속에 정당하게 자리매김하려는 해석학적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3.1운동의 구속사적 측면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에드워드 카가 말한 것처럼 ‘미래를 위해 소환하는 과거’이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미래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2. 기미독립운동의 열개

1) 기미독립만세운동의 시작과 중간결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을 촉발시킨 요인들은 여러 가지이다.⁶⁾ 그 근인(近因)은 1919년 1월 21일의 고종 서거와 3월 3일로 잡힌 인산일(因山日)이었다.

4) 18세기 ‘구속사’ 학파의 사상을 일별하려면, Raymond E. Surburg, “An Evaluation of Heilsgechichte Theolog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ir Implications,” *The Springfielder* (Concordia Theological Seminary, ILL) 33/2(1969), 4-23을 참조하라. 구약성경의 구속사는 일반역사와 구속사를 나누는 데 관심이 없다. 오히려 구속사를 쓰는 목적을 더 중요시한다. 구약성경 역사가들이 지난 과거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행동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오로지 아웨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설복하기 위함이었다(참조. 원진희, “아웨의 구원사와 이스라엘의 선택 [수 24장],” 『구약논단』1(2005년 4월), 32-55[특히 50]).

5) Gerhard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vol. 1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2), 105-133.

6) 이윤상 『3.1운동의 배경과 독립선언』(천안: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3-48. 이윤상은 국제운동의 배경으로 3.1운동을 전후한 국제정세(월슨의 민족자결주의, 파리강화회의, 해외항일세력 결성), 일제의 약화되는 무단통치,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진행된 조선의 수탈을 위한 일제의 경제적 재정적 정책 세 가지를 지적한다. 전반적으로 국제정세요인을 과대평가한 듯한 인상을 준다.

3.1기미독립만세운동을 촉발시킨 근인(根因)은 1876년부터 시작되는 일제의 조선침탈이며 특히 1910년부터 격화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총체적인 약탈적 지배였다. 기미독립만세운동을 부추긴 외인(外因)은 약소국의 독립을 지지할 것 같은 국제정세였다. 1차세계 대전 직후에 나온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와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의 사회주의 사조가 조선 독립 촉진을 도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중국 상해에서 1918년 8월 여운형, 장덕수, 선우혁, 조동우 등 망명인사들은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을 결성하고 김규식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했다. 그들은 1차 세계대전(1914-1918) 직후 조성된 민족자결주의 사조에 기대를 걸고 조선독립을 위해 열강의 중재를 간청하려고 했다(1919년 1월). 그러나 열강대표들은 패전국의 식민지독립에만 관심을 가졌지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독립에는 추호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기미독립선언서에는 마치 시대사조가 약소국의 독립을 후원하는 것처럼 믿는 낙관주의가 엿보이지만 이것은 순진한 국제정세인식이었음이 이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기미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하도록 추동한 또 다른 외적 자극은 해외에서 먼저 일어난 독립선언들이었다.⁷⁾ 제정 러시아에서 일어난 1917년 2월혁명과 10월 혁명의 결과 동구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이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을 목격한 만주지역과 연해주의 무장투쟁 독립운동가들은 1918년 2월 “대조선독립단”을 결성하고 박은식(朴殷植), 조소앙(趙素昂) 등이 기초한『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 즉 무오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⁸⁾ 이 선언서는 “육탄전쟁(肉彈戰爭)의 항일독립전쟁을 벌릴 것”을 선언하였다. 같은 해 2월 8일 동경유학생들 400명 또한『2·8독립선언』을 발표하여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자주독립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두 가지 독립선언이 국내 종교인들로 하여금 기미독립선언을

7) 1985년부터 1908년에 국에 달한 의병항쟁은 국내를 항일열기로 데웠으며 조선의 일제지배에 대한 반감을 크게 느낀 항일적 조선인들은 국외로 나가 항일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8) 최태성『한국사』(파주: 푸른들녘, 2018), 252-253.

하도록 자극했다.⁹⁾

종교인들에 의해 공포되었던 기미독립선언서는 독립을 청원하는 평화주의적 기조를 전면에 내세운다. 그것은 독립투쟁을 선동하기보다는 우리 겨레의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일본과 인류의 양심에 호소하는 ‘종교적’ 호소문에 가까웠다.¹⁰⁾ 그래서 33인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스스로 일본경찰에서 자수했다. 하지만 3.1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의 평화주의적이고 독립청원적 논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조선총독부의 무력진압이 시작되자 기미독립만세운동도 물리적 투쟁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이 물리적 투쟁양상의 확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보다도 1910년부터 계속된 조선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총체적 침탈에 대한 민중저항의 강도는 총독부의 예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는 것이다.¹¹⁾ 기미독립만세운동의 폭발적 확장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일제의 조선침탈과정을 연대기적으로 개관할 필요가 있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으로 일본의 조선 간섭 시작

1894-1895년 청일연합군 동학혁명군 분쇄

1894-1895년 청일전쟁 일본승리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박탈

1907년 고종의 헤이그 밀사 파견과 고종의 퇴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군대해산¹²⁾

-
- 9) 윤경로, “3·1독립만세운동의 역사성과 교회의 역할 - 3·1절 99주년을 기념하며 -”, 평통기원과 한교총 주최 한국교회 3.1절 99주년 기념예배와 심포지엄 발표(2018년 3월1일 종교교회), 1-12(특히 2쪽).
 - 10) 1776년 7월 4일에 미국 13개주 대표들이 먼저 독립을 선포하고 후에 전쟁에 돌입한 것과는 전혀 다른 행로를 예상한 것이다. 미국은 독립선언 후 약 7년간의 전쟁을 거친 후(1783년) 실제적인 독립을 쟁취했다.
 - 11) 이기백, 『한국사 신문』(서울: 일조각, 2014), 331-346. 이기백은 기미독립운동을 촉발시킨 일제조선침탈과정을 실증적인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견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 12) 8월 8,800여명의 조선 군대해산. 일부는 의병으로 총원된다. 1895년부터 시작된 의병항쟁이 격화되어 1908년 극고점에 이른다. 특히 경상, 강원, 경기, 황해지역에 의병활동이 강력했다.

1907년 의병장 이인영, 허위 1만명 13도 창의군 건설¹³⁾

1908년 의병 교전 1976회 교전참여 의병수 82,767명

(1907년부터 1911년 6월 141, 818명; 1908년 극심 1,451회) 총 2,852회

1904-1910년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조선의 왕실소유, 국공유지 토지 약탈.

1910년부터 사유지이면서 미신고토지 총독부 몰수. 총독부 최대지주로 등장¹⁴⁾

1912년-1919년 자원독점, 산림독점, 공공사업지배(전신시설, 금융지배, 민족산업압제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탄

1910년 테라우치 통감 총독취임. 총독부 설치¹⁵⁾

양국(讓國)조서(순종 8월 29일)로 국권상실

1910년 테라우치 암살미수 혐의와 기독교지도자 105인 사건

1912년 헌병무단통치 결과 5만명 이상의 조선인 단속

1918년 14만명 이상의 조선인 단속¹⁶⁾

이상의 일체의 조선침탈이야말로 기미독립만세운동의 폭발적 확산을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미독립만세운동을 무장투쟁형 독립운동으로 재빨리 격상시킨 지역은 한반도의 북쪽이었다. 신민회 등 비밀결사와 1917년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고무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에 쉽게 노출되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인접지역인 북한지역 기층농민들은 일제에 대하여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무력투쟁적인 독립운동에 상대적으로 빨리 개안했다.

그리하여 3월부터 5월 말까지 계속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는 누적적으로 증가했다. 50명 이상 참가한 시위자로 제한해도 연인원으로 200여만 명이 넘었다. “당시 인구가 1천 7백만명 정도였다는 점과 어린이층을

13) 이기백, 위의 책, 338.

14) 이기백, 위의 책, 339-340.

15) 이기백, 위의 책, 335.

16) 헌병기관 640개소, 경찰 480개소, 헌병 2019명, 경찰 5693명(이기백, 같은 책, 336-337).

제외한다면 당시 전체 국민 중 학생층을 비롯한 성인층 모두가 시위운동에 참여한 명실상부한 전 민족이 참여 껴기한 대한독립만세운동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이 거족적 항일궐기의 열기와 운동력은 역으로 한반도를 넘어 해외 거주조선인들에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기미독립만세운동은 몇 가지 결실을 맺었다. 첫째 일제는 형식상으로 헌병무력에 의한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식민지배 기조를 바꾼다. 둘째, 3·1운동은 민족의식을 일으켜 교육, 종교, 언론, 문예 분야 등에서 느슨하지만 광범위한 독립해방 욕구를 확산시킨다.¹⁸⁾ 셋째, 중국(5·4운동)과 인도 등 해외의 반식민지해방투쟁에 영향을 미친다.¹⁹⁾ 장개석의 국민당이 상해임정을 돕도록 방조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넷째, 평화적 독립청원이나 외교적 노력을 통한 독립청원외교 방법보다는 민족주의적 무력항쟁이나 사회주의적 무력항쟁 독립론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²⁰⁾ 마지막으로 국내 및 해외 여러 곳에 망명정부를 수립시킨다. 서울의 한성정부,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 상해임

-
- 17) 윤경로, 뒷글, 3; 김승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121(2018년 4월), 권두언, 1-2. 김승태는 1919년 3-5월까지 50명 이상 참가한 시위횟수가 1500회가 넘었고 연인원은 인구 대비 약 10%가 기미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고 본다(총인구 1880만명-2천만 중 202만명 정도). 당시의 기독교인은 3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5%에 불과했으나 1919년에 독립만세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19,054명 중 17.7%인 3,373명의 기독교인들이 옥고를 치렀다(1-2). 김승태는 기미독립만세운동, 즉 3·1혁명이 주창한 자주독립, 정의인도, 평등평화는 분단체제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 겨레에게는 실현되지 못했으므로 3·1혁명은 미완의 혁명이라고 본다.
- 18) 그 결과 식민지 조선에 신문들(동아일보 1920년, 조선 1933년)이 창간되고 문예잡지들(1919년 <창조>, 천도교 종합문예지 <개벽> 1920년, 김교신 등의 <성서조선> 1927년)도 창간되기 시작했다.
- 19) 한승훈,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의 불완전한 정립과 균열,” 역사와 현실, (2018년 6월), 209-243. 한승훈은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를 과장하는 2009년판 검정판 <고등학교 교과서>의 논조(1955년 이헌구 등의 과대평가, 1989년의 신용하의 과대평가)를 비판한다. 중국의 5·4운동 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210).
- 20)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35-50. “3·1운동의 교훈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위나 하고 만세나 불러서는 침략자들이 물러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독립군의 싸움만으로 나라를 찾을 수도 없다. 온 강산이 왜놈의 감옥으로 되고 총칼의 숲으로 덮이었으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거족적인 힘으로 침략자들과 싸워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도 로씨야처럼 민중혁명을 해야 한다. 민중이 총칼을 들고 일어나 원수와 싸워 나라도 찾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상 다른 아닌 무산 혁명방침이었다. 아버지(김형직)는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고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으로 방향 전환 시켜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47-48). “아버지는 <청원>이나 <외교>가 아니라 무장활동을 해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새로운 무장활동 준비를 다그치었다”(49).

시정부가 세워진다.²¹⁾ 1919년 이후에 세워진 임시정부들은 열강외교가 가장 활발하게 펼쳐진 상해로 모여 상해임시정부가 유일합법적인 망명정부가 된다. 상해임시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3권 분립에 입각한 최초의 공화국 정부라는 것이다. 결국 기미독립만세운동이 결실한 최대의 열매는 대한제국의 죽음에서 산파된 ‘대한민국 공화국’이다. 기미독립운동의 궁극목적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건설이라는 것이다.

2) 기미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독립만세운동의 의미²²⁾

엄격하게 말하면, 기미년 항일독립만세운동은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서명되고 낭독된 기미독립선언서와 다른 실체이다. 약 10개월 동안 거족적으로 전개된 기미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200만 조선민중이 기미독립선언서를 과연 행동강령으로 의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미독립선언서의 지향은 그 후에 전개된 독립운동을 좌악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1919년 기미독립운동을 계승하여 산파된 상해임시정부가 기미독립선언서가 꿈꾸는 ‘공화국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했다는 사실에서 27년간의 독립항쟁 역사에서 이 선언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김구의 지도 아래 상해임정은 이봉창 의사 일왕 폭살시도사건(1937년 1월), 윤봉길의 일군대장 시라카와 대장 폭살사건(상해 홍구공원) 등을 일으켜 일제에 무력으로 대항했으며 1941

21) 최태성, 같은 책, 257-258, 물론 북한의 공식교과서나 관변역사서들은 3.1운동을 무장투쟁력이 결여된 부르주아 민족주의운동이라고 폄하하며 상해임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초기에는 남한 대부분의 역사교과서가 서술하듯이 3.1운동을 서울 중심의 민족주의 세력, 종교세력, 청년세력 등의 거족적인 연합만세운동이라고 보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김일성 위상화작업이 완료되어 가는 과정에서 기미독립만세운동을 김일성의 부친 김형직의 지도 아래 숭실학교 학생 및 평양인민들이 주도한 독립투쟁이라고 왜곡했다(김창순, “3·1운동에 대한 역사인식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가,” 北韓, 363(2002년 3월), 24-29(특히 26-27)).

22) 이윤상, 위의 책, 80-95(특히 87-95). 이윤상은 19세기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표방한 2.8독립선언서와 비교해 볼 때 기미독립선언서는 18세기 인도주의적 민족주의 독립선언서라고 규정한다(87). ‘민족자결’이라는 말이 기미독립선언서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민족독립의 원리를 외래사상에서 찾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윤상은 기미독립선언서는 갈등보다는 조화, 분리보다는 통합에 가까운 평화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약삼장은 투쟁정신(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을 고취하기보다는 독립을 향한 강렬한 민족갈망을 피력하는 상징적인 어구라고 말한다(89-90).

년부터는 미영중소 열강 4대국에게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매년 보냈다. 상해 임정은 기미독립선언서의 독립청원을 뛰어넘는 물리적 독립쟁취에 나섰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는 <백범일지> 부록 “나의 소원”에서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나라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사랑의 고급문화가 꽃피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문화국가라고 규정한다. 그것은 기미독립선언서가 꿈꾸는 나라이기도 했다. 김구는 자신이 회구하는 나라는 고도의 문화국가, 사랑의 덕과 법치가 조화되는 나라라고 정의한다. 김구는 기독교나 특정종교가 국교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만 신앙적 영성으로 단련된 나라를 회구한다. 그는 조국이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민족이 스스로 건설하는 민족국가, 자유가 근본인 나라(스탈린주의, 나치즘, 파시즘 체제 대항), 언론자유, 투표자유, 다수결 복종으로 지탱되는 민주주의 국가, 교육과 문화가 주도하는 격조 높은 문화국가, 홍익인간의 이상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성인(聖人)처럼 성숙해져 세계만방을 인의와 자비로 이끄는 주연국가로 우뚝 서기를 열망했다.²⁴⁾ 기미독립선언서나 <나의 소원>에서 회구되는 나라는 거의 유토피아적인 이상국가이다.

우리는 기미독립선언서가 회구하는 나라가 기독교적 공공윤리, 유교적 교양과 도가적 영성이 체현되는 평화국가라는 점에 착안해 독립선언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독립선언서는 서언, 본론 1 조선이 독립국이 되고 조선인이 자유민이 되어야 하는 이유, 본론 2 조선인이 일제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과정과 맥락, 본론 3 일제의 조선지배의 부정적 결과와 일제의 조선지배 포기가 가져올 국제평화 전망, 본론 4 역사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 전망, 결론격인 행동강령을 담은 공약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김구, 『백범일지』(서울: 돌베개, 1997), 443-445.

24) 김구, 위의 책, 423-433.

3) 기미독립선언의 구조와 중심주장

(1) 서언

① 세계만방에 조선(朝鮮)이 독립국(獨立國)이며 조선인(朝鮮人)은 자주민(自主民)임을 고(告)한다. 이것이 인류평등(人類平等)의 대의(大義)를 극명(克明)하는 일환이기 때문이다.

② 독립국과 자유민 선언의 목적은 자손만대(子孫萬代)로 하여금 민족자존(民族自存)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케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 중심주장은 반만년(半萬年) 역사(歷史)의 권위(權威)²⁵⁾와 이천만(二千萬) 민중(民衆)의 성충(誠忠)의 충의이다.

조선의 독립국지위와 조선인의 자유민 지위를 선포하는 목적은 민족(民族)의 자유발전(自由發展)을 위함이며 이를 선포할 수 있는 도덕적인 원천은 인류적(人類的) 양심(良心)이다. 민족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독립국을 세우는 것이 세계개조(世界改造)의 대기운(大機運)에 순응병진(順應並進)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의 독립국지위 선포와 조선인의 자유민신분 선포는 천(天)의 명명(明命)이며, 시대(時代)의 대세(大勢)이며, 전인류(全人類) 공존동생권(共存同生權)의 정당(正當)한 발동(發動)이다.

(2) 본론 1 조선이 독립국이 되고 조선인이 자유민이 되어야 하는 이유

① 조선은 구시대(舊時代)의 유물(遺物)인 침략주의(侵略主義), 강권주의(強權主義)에 희생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이민족(異民族)에게 검제(箝制)당하는 통고(痛苦)를 십년(十年)째 당하고 있다.

② 구래(舊來)의 억울(抑鬱)을 선창(宣暢)하고, 현재의 고통(苦痛)을 파탈(擺脫)하며, 장래(將來)의 험위(脅威)를 제거하고, 민족적(民族的) 양심(良心)과 국가적(國家的) 염의(廉義)의 압축소잔(壓縮銷殘)을 흥분신장(興奮伸張)

25) 기미독립선언서는 1919년 3월 1일 "조선건국(朝鮮建國) 사천이백오십이년(四二五二年) 삼월(三月) 일일(一日)"로 명했다. 기원 전 2333년에 우리나라가 건국되었다는 대중교나 동학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하고, 조선인 각각의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이루려고 하면, 후손들에게 영구완전(永久完全)한 경복(慶福)을 추구하려고 하면 최대급무(最大急務)는 민족독립(民族獨立)을 확실히(確實)케 함이다.

③ 이천만(二千萬) 각개(各個)가 단호하게 일어나고 인류통성(人類通性)과 시대양심(時代良心)이 정의(正義)의 군(軍)과 인도(人道)의 간과(干戈)로써 호원(護援)하는 금일(今日), 오인(吾人)은 독립의 대의를 들고 진취(進取)한다.

(3) 본론 2 조선인이 일제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과정과 맥락

① 병자(丙子) 수호조규(修好條規) 이래(以來) 수시로 금석맹약(金石盟約)을 위반한 일본(日本)의 무신(無信)을 탓하지 않는다. 학자(學者)는 강단(講壇)에서, 정치가(政治家)는 실제(實際)에서, 오랜 세월의 역사 속에 구축된 조선을 식민지시(植民地視)하고, 문화민족(文化民族) 조선을 토매인우(土味人遇)으로 멸시한다. 조선의 유구한 사회기초(社會基礎)와 탁발(卓犖)한 민족심리(民族心理)를 무시(無視)하는 일본(日本)의 소의(少義)함을 책망하기보다는 자기(自己) 자신을 책려(策勵)하기에 급(急)하므로 일본에게 원한을 품지 않겠다. 오늘 독립선언은 자기건설(自己建設)이지 결(決)코 타(他)의 파괴(破壞)가 아니다. 엄숙(嚴肅)한 양심(良心)의 명령(命令)으로써 자가(自家)의 신운명(新運命)을 개척(開拓)함이지 결(決)코 지나간 구원(舊怨)과 일시적(一時的) 감정(感情)으로써 타(他)를 질척배척(嫉逐排斥)함이 아니다.

② 구사상(舊思想), 구세력(舊勢力)에 기미(羈靡)된 일본 위정가(爲政家)의 공명적(功名的) 희생(犧牲)이 된 부자연(不自然), 혹은 불합리(不合理的)한 착오상태(錯誤狀態)를 개선광정(改善匡正)하여, 자연(自然), 혹은 합리(合理的)한 정경대원(正經大原)으로 귀환(歸還)케 함이다.

(4) 본론 3 일제의 조선지배의 결과와 일제의 조선지배 포기가 가져올 국제 평화전망

① 1910년 경술한일병탄(兩國併呑)은 당초(當初)에 민족적(民族的) 요구

(要求)로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양국병합은 민족간(民族間)에 영원(永遠)히 화동(和同)할 수 없는 원구(怨溝)를 거익심조(去益深造)한다.

② 이천만(二千萬) 합분축원(含憤蓄怨)을 위력(威力)으로써 구속(拘束)함은 동양(東洋)의 영구(永久)한 평화(平和)를 보장(保障)하는 소이(所以)가 아닐 뿐 아니라, 차(此)로 인(因)하여 동양(東洋) 전국(全局)이 공동동망(共倒同亡)의 비운(悲運)을 초치(招致)할 것이 분명하다.

③ 일본(日本)의 사로(邪路) 탈출로 성취될 조선독립(朝鮮獨立)은 지나(支那)로 하여금 불안(不安), 공포(恐怖)로부터 탈출(脫出)케 하는 것이며, 이렇게 구축된 동양평화(東洋平和)는 세계평화(世界平和), 인류행복(人類幸福)에 필요(必要)한 계단(階段)이 된다. 따라서 조선독립은 구구(區區)한 민족주의 감정(感情) 문제(問題)가 아니다.

(5) 본론 4 역사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 전망

① 위력(威力)의 시대(時代)가 거(去)하고 도의(道義)의 시대(時代)가 도래한다. 오랜 세월 동안 연마장양(鍊磨長養)된 인도적(人道的) 정신(精神)이 바야흐로 신문명(新文明)의 서광(曙光)을 인류(人類)의 역사(歷史)에 투사(投射)하기 시작한다. 천지(天地)의 복운(復運)과 세계(世界)의 변조(變潮)대세에 편승하여 우리는 기탄(忌憚)없이 조선의 자유권(自由權)을 호전(護全)하여 생왕(生旺)의 낙(樂)을 포향(飽享)할 것이며, 우리 조선의 자족(自足)한 독창력(獨創力)을 발휘(發揮)하여 민족적(民族的) 정화(精華)를 과시할 것이다.

② 오늘 분기하는 우리 조선인에게 양심(良心)이 동존(同存)하며 진리(眞理)가 조선과 병진(并進)한다. 남녀노소(男女老少) 없이 기래(起來)하여 만휘군상(萬彙群象)으로 더불어 흔쾌(欣快)한 부활(復活)을 성수(成遂)케 한다. 천백세(千百世) 조령(祖靈)이 음우(陰佑)하며 전세계(全世界) 기운(氣運)이 오등(吾等)을 외호(外護)한다. 그러므로 독립운동 착수(着手)가 곧 성공(成功)을 보장하니 앞서가는 광명(光明)으로 맥진(驀進)할 따름이다.

전문 뒤에 첨부된 공약삼장(公約 三章)은 기미독립운동의 행동강령을 말한다. ‘독립요구는 정의(正義), 인도(人道), 생존(生存), 존영(尊榮)을 위(爲)하는 민족적(民族的) 요구(要求)이므로 오직 자유(自由) 정신(精神)을 발휘(發揮)할 것이요, 결(決)코 배타적(排他的) 항일감정(感情)으로 일주(逸走)하지 말아야 한다. 최후(最後)의 일인(一人)까지, 최후(最後)의 일각(一刻)까지 민족(民族)의 정당(正當)한 의사(意思)를 발표(發表)하되 질서(秩序)를 존중(尊重)하여 광명정대(光明正大)하게 하여야 한다.’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에서 민중이 주인되는 ‘공화국’을 산파한 3.1혁명

기미독립선언서의 가장 놀라운 점은 순종황제가 을사오적 등과 협의해 맺은 국권양도 조약, 즉 경술한일합방 조약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공화국의 주체인 ‘민중’의 등장이다. ‘독립국과 자유민 선언의 목적은 자손만대(子孫萬代)로 하여금 민족자존(民族自存)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케 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 중심주장은 토대는 민족자주권을 누린 정권을 가진 반만년(半萬年) 역사(歷史)의 권위(權威)와 이천만(二千萬) 민중(民衆)의 성충(誠忠)의 총의이다.’ ‘당초(當初)에 민족적(民族的) 요구(要求)로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이천만(二千萬) 각개(各個)가 단호하게 일어나고 인류통성(人類通性)과 시대양심(時代良心)이 정의(正義)의 군(軍)과 인도(人道)의 간과(干戈)로써 호원(護援)하는 금일(今日), 오인(吾人)은 독립의 대의를 들고 진취(進取)한다.’

이처럼 이천만 민중의 총의를 강조하는 기미독립선언서는 대한제국과 을사오적이 맺은 국권양도협약이 조선민중의 요구가 아니었기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일제의 한일병탄을 반대하는 이천만 민중은 대한제국의 법이나 일제의 총독부포고령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체제 아래 매인 백성이 아니라, 인류통성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초국가적인 자유민이다. 선언서는 여러 차례 ‘양심’을 언급하며 ‘양심’에 호소한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하늘(天)의 명령이라고 주장한다. 선언서는 양심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연법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에서 기독교적이면서 천도교적이다. 여기가 바로 기독교와 동양종교들이 합의하는 지점이다. 모세오경의 율법은 자연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을 완성한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강조했다지만 자연법의 우선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렘 5:24; 8:7; 10:2-5; 사 1:1-3).²⁶⁾ 모세오경의 율법이 반포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쳤고 아벨에게도 동일하게 선하게 행동하는 것의 공리적 중요성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 즉 양심의 작동을 인정한다(롬 2:14-15,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syneidesis]이 증거가 되어..”[15절]). 선언서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양심’에 따라 그리고 특수하게 작동하는 ‘민족적 양심’에 따라 조선독립을 요구한다. 각 개인에게 자유, 각 민족에게는 독립국가를 세울 자유를 갖는 것이 하늘의 명령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인류통성의 양심을 가진 조선민중은 조선황제와 일제의 몇몇 공명적 위정자들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국권양도조약을 무효로 선언하고 독립국의 자유민임을 선포한다. 그런 점에서 기미독립만세운동은 제국의 황제가 조인한 칙령(국권양도)을 거부하는 공화주의적 ‘혁명’선언이었다.²⁷⁾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일개 황제의 조약체결에 달려있지 않고 2천만 백성의 손에 달려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3.1운동의 지도자 손병희 등도 여러 차례 일제의 심문에서 ‘그대들이 회복할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고 응답했다. 결코 기미독립만세운동은 조선왕실복원운동이 아니었다.

당연하게도 3·1운동의 결실로 산파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시헌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선언하여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정체를 ‘민주공화제(民主共和制)’라고 공포하였다. 상해임정은 3.1운동의 최대성취는 ‘제국(帝國)에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나라에로의 혁명적 변화

26) 요람 하즈니, 『구약성서로 철학하기』, 김구원 옮김(서울: 홍성사, 2016), 219-223. 원제는 Yoram Hazony, *The Philosophy of Hebrew Scriptur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27) 윤경로, 뒷글, 5-6.

라고 인정한 것이다.²⁸⁾ 기미독립선언서의 핵심은 일제식민통치의 거부만이 아니라 제국통치의 거부이기도 했던 것이다.²⁹⁾

36년간의 항일독립운동사에 처음으로 실현된 반(反)제국주의 연합전선

본론 2가 보여주듯이 기미독립만세운동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타율적으로 진행된 근대화과정의 결과로 초래된 조선의 국권상실에 대한 포괄적이고 거족적인 응답이었다. 다만 기미독립선언서와 독립만세운동에서는 아직 계급의식은 맹아되지 않았으며 '민족'의 실체를 전제하는 민족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다. 김형직이 주도한 평양의 조선국민회의 등도 당시에는 사회주의 계급투쟁의식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1919년 '3·1혁명'은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일제의 조선침략에 대한 "민족주의적, 계급주의적 저항운동의 총화였다. 부르주아 중심의 갑신정변(1884),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올렸던 갑오동학농민혁명(1894), 국권수호와 민권신장을 선도했던 독립협회(1896) 활동"³⁰⁾ 그리고 의병활동 등이 합류한 체제전복적 거사였다. 3·1거사의 이념과 정신에는 앞서 전개된 여러 민족운동의 정신과 이념이 합류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19세기 "민족주의"이론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상에 따르면 '국가는 민족단위로 구성된 정치적 영토결사체'를 의미했다. 그것은 프랑스 대혁명³¹⁾과 나폴레옹의 유럽 왕정타파 혁명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민족국가 이해"였다. 각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가 확보한 주권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상이다. 이 때 이후 형성된 민족주의

28) 윤경로, 뒷글, 8.

29) 물론 이태진과 오다 하루키 등이 밝혔듯이 한일병탄 조약 자체가 날조된 날인으로 서명되었기에 문제가 많지만 독립선언서는 그보다 그 근원적 주장을 하고 있다(오다 하루키, 경향신문 칼럼, "한일병합 100년...2라운드 싸움은 지금부터"[2010년 09월 7일]). 이태진 교수는 1910년 한일합방조약에는 국새날인과 순종친필 서명이 없어 원천무효라고 주장한다(1995년 6월 6일 조선일보 기사). 두 사람은 한일병탄조약은 '원천무효'라는 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한일합방조약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한일지식인 200인 선언을 주도했다(2010년 5월 10일 경향신문 기사).

30) 윤경로, 뒷글, 7.

31) "모든 주권원칙은 본질적으로 내이션에 있다"(프랑스대혁명 선언, 인간과 시민권리 선언 3조).

에 따르면 ‘모든 각각의 인종집단은 각기 자기 나라(nation)를 가져야 한다.’ 각 네이션은 하나의 인종집단에 근거해야 한다. 이것이 민족국가 (nation-state)의 기본 이념이다. 이것은 월슨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와는 다른 민족자결사상이다(self-determination). 민족자결주의에서 말하는 이 자기(self)는 관념적으로 착상될 수 있는 인종적 단위의 민족공동체 전체로서의 “자기”를 가리킨다.³²⁾ 그러므로 ‘민족’이라는 말은 계급적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공통의 적 혹은 부정적 타자 앞에서 형성된 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리는 절대악 앞에 조선민중 이천만은 ‘민족’이라는 단일한 집단으로 묶일 수 있었다. 적어도 기미 독립만세운동에서는 이천만 동포의 계급적 분화의식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1920년대부터 유입된 사회주의 사상으로 항일독립운동은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로 분화되어 진행되었고 이 좌우분열은 아직도 아물지 않는 분단체제로 고착되어 있다. 결국 3.1운동은 우리 겨레의 역사에서 좌우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도달한 거족적 항일단일대오였던 셈이다.

현세적 유토피아니즘에 사로잡혀 ‘실패한’ 기미독립선언

그동안 기미독립운동의 폭발력을 설명하는 데 익숙한 논리는, 일제의 조선 침탈의 철저성과 1910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무단통치의 반인륜성이 조선민중의 혁명적 항일운동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제의 악랄한 조선침탈만 갖고는 기미독립만세운동의 폭발적 확산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무엇이 조선민중을 그토록 가열찬 만세독립운동 대열로 불러내었을까? 우리는 그 대답의 실마리가 본론 4에 있다. 여기서 기미독립선언서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기탄없이 내놓는다. 선언서는 인류 역사를 신천지(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목적사관을 피력하고 있다. “위력(威力)의 시대(時代)가 거(去)하고 도의(道義)의 시대(時代)가 도래한다. 신천지(新天地)

32) 이 ‘민족-국가’ 사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 슬라브족, 게르만족, 쿠르드족, 줄루족은 단일 민족-국가를 세우는 데 실패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다인종-다문화-다종교 혼종국가이다.

가 안전(眼前)에 전개(展開)되고 있다. 인도적(人道的) 정신(精神)이 인류(人類)의 역사(歷史)에 투사(投射)하기 시작한다. 천지(天地)의 복운(復運)과 세계(世界)의 변조(變潮)대세에 편승하여 우리는 조선의 자유권(自由權)을 호전(護全)하여 우리 조선의 자족(自足)한 독창력(獨創力)을 발휘(發揮)하여 민족적(民族的) 정화(精華)를 과시할 것이다....그러므로 독립운동 착수(着手)가 곧 성공(成功)을 보장한다.”

위 단락은 기독교종말론 중 후천년설적인 낙관주의 혹은 천도교적 천지개벽사상의 일단을 피력하고 있다.³³⁾ 독립선언서는 식민지주의, 무력지배주의 등은 이제 역사 속에서 단련된 인도적 정신이 주도하는 신문명에 의해 폐기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한다. 천지의 복운과 세계의 변조대세가 조선의 민족적 부활을 이루게 민족적 정화를 발휘할 기회를 준다고 믿는다. 인류양심과 진리가 조선과 병진한다고 믿는다. 선언서는 천백세 조령(조상들의 영)과 전 세계의 기운이 조선을 호위하므로 독립운동 착수가 곧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었다.

이 놀라운 낙관주의를 주목한 학자들은 기미독립만세운동의 폭발력은 <정감록> 수준의 예언을 믿고 그 예언을 스스로 성취하려는 절망적 조선민중의 기투(企投)에서 발출되었다고 본다. 권보드래는 “(3.1운동은) 현세적 유토피 아니즘이 처음으로 한반도의 대중을 사로잡은 사건이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3.1운동은 세계전체가 달라질 것을, 그 안에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적 질서가 혁신되고 자아의 위치가 달라질 것을 기대했다”고 주장한다.³⁴⁾ 3.1혁명에 참여한 민중들이 ‘독립’이라는 말로 꿈꾸고 ‘만세’라는 구호로써 소환하고자 했던 새 나라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신세계였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헝가리, 투르크, 러시아 등 강대한 구제국들이 몰락하고 미국과 신생사회주의 국가 러시아가 새로운 세계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고 본 세계

33)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등장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염두에 둔 것인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결과를 염두에 둔 것인지, 혹은 둘 다를 염두에 둔 것인지 분명치 않다.

34) 권보드래, “만세의 유토피아,” 『한국학연구』38(2015년 8월), 193-226(특히 212).

인들(특히 약소국 국민들)은 “세계는 바야흐로 유토피아니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동 선언서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세계가 바야흐로 정의, 인도, 평화의 새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믿음을 피력했다.³⁵⁾ 손병희도 일제의 심문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는 세계가 개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독립선언서를 일본정부에 보내면 일본정부는 동양평화를 위하여 조선을 독립시킬 것으로 생각했다.”³⁶⁾

일본과 세계에 변화를 요구하는 33인 민족대표에 동조하며 봉기에 합류했던 평범한 개인들은 세계열강이 조선독립요구를 경청할 것으로 믿었다.³⁷⁾ 그것은 기대인 동시에 요청이었다. 실제 민중들의 3.1운동에는 “세금, 교육, 출세상의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민중들의 요구도 분출되었지만 새로운 유토피아적 세계질서에 대한 열망 또한 분출되었다. “3.1운동 대중은 세계에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종의 예언자로서 세계의 변화를 희망하고 요청하였다.”³⁸⁾ 독립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즉 독립을 위해 그토록 투신하는 것이 현실적인 생활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면, ‘3.1운동 민중들이 성취한 당시의 숭고한 정신적 비약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³⁹⁾ 권보드레는 이 유토피아니즘이 3.1운동 대중들을 가열 찬 만세운동꾼으로 변화시켰을 것이라고 본다. 그는 3.1운동은 1차 세계 대전 직후의 이상주의와 상응하며 정감특식의 소망에서부터 세계국가에의 전망까지 접속된 다층적 사건이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3.1운동 당시 만세와 독립은 민족해방으로 소진되지 않고 계급대결로 다 해소되지 않는 유토피아적 충동을 표시한다....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철폐되길 소망했고 또한

35) 권보드레, 뒷글, 218.

36) 한민족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손병희 심문조서 (3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6), 128.

37) 권보드레, 뒷글, 219.

38) 권보드레, 뒷글, 220.

39) 권보드레, 뒷글, 221-222.

현재의 부조리를 보상할 새 나라를 꿈꾸었다.”⁴⁰⁾ “3.1운동에서의 독립은 대한 제국회복이 아니라 일찍이 존재하지 않던 새 나라 건설을 겨냥했다.”⁴¹⁾ 3.1운동의 민중들은 경건한 자기암시적 소망에 사로잡혀 독립만세열기를 내뿜었다는 것이다. 권보드래의 통찰은 기미독립운동의 폭발적 확산을 설명하는 설득력있는 시좌라고 본다.

그렇다면 기미독립만세운동은 성공했는가? 즉각적인 독립을 가져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패했다. 하지만 대신 3.1운동은 일제치하 36년간의 조선민중의 응답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며 후에 벌어진 가열찬 항일독립투쟁의 귀감이 되었고 오늘 우리나라의 헌법전문에까지 들어왔다는 점에서 성공한 독립투쟁운동이었으면서도 민주공화국 산파운동이었다. 헌법학자 이영록은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약헌에서부터 1987년 최신헌법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은 헌법이 기억해야 할 첫째 사건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⁴²⁾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1987년 개정헌법 전문). 대법원은 2013년에 내린 한 판결에서 이 구절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라는 점과 나아가 현행 헌법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배격하고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사상적 토대 위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겪었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헌

40) 권보드래, *읽글*, 208.

41) 권보드래, *읽글*, 209.

42) 이영록, “헌법에서 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 *법학논총(法學論叢)* 24/1(2017), 3-24. 이영록은 이 헌법전문에 3.1운동 언급의 사법적 효력의 일단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국가기속 결정취소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3.3.28 선고 2009두11454 판결 등)에 드러났다고 본다(19).

법적 요청 내지 결단”을 피력한다고 해석했다.⁴³⁾ 결국 3.1운동은 사회정의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 강령으로 헌법안에 살아남았다.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그들의 예언활동으로 신천신지를 도래케 하는데 실패했으나 그들의 예언들이 정경화되듯이, 3.1운동 참여 민중들은 당대에서는 예언 성취에 실패했으나 그들의 발자취는 헌법적 가치로 남겨졌다.

기미독립선언서와 기미독립만세운동에서 결여된 것, 준엄한 자기책려

본론 2(“조선인이 일제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과정과 맥락”)는 문화민족인 조선을 토매인처럼 대우하고 조선의 유구한 사회기초와 탁월한 민족심리를 무시하는 일본의 신실하지 못함을 책망하기보다는 자기(自己) 자신을 책려(策勵)하기에 급(急)하다고 고백한다. “오늘 독립선언은 자기건설(自己建設)이지 결(決)코 타(他)의 파괴(破壞)가 아니다.” 그런데 왜 조선이 파괴되었는지, 누가 조선의 파괴를 주도했는지를 준엄하게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기초가 기미독립선언서에는 부각되지 않는다(참조, 사 3장). 이 점이 성경의 예언자적 역사이해와 다른 점이다. 민족주의 역사관이나 북한의 사회주의적 역사이해 모두에도 조선의 몰락을 ‘우리 죄악 탓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주체세력’이 실종되어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나라의 멸망을 외국강대국의 침략 탓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 스스로 공동체성을 파괴했기 때문에 거의 스스로 망했다고 말한다. 즉 언약파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결과 나라가 망했다고 증언했다.⁴⁴⁾

카(Carr)는 또한 개개의 역사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신을 원인으로 끌어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⁴⁵⁾ 그는 인간적 원인을 충분히 궁구하지 않고 역사적 사

43) 이영록, 윗글, 19. 위의 대법원 선고 판결문은 이영록의 글에서 재인용했다.

44) 기미독립선언서는 조선의 일제식민지화를 초래한 죄책고백을 결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구속사는 죄책고백을 결정적인 전환기마다 배치하고 있다. 우상혁은 느헤미야 9장의 죄책기도문의 목적이 단지 과거회고적 참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메르사로부터의 해방)를 창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우상혁, “역사를 품은 기도: 느헤미야 9장 5b-37절,” 구약논단, 24/2(2018년 6월), 118-142(특히 135-136)).

45) 이 단락은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3장 “역사, 과학, 그리고 도덕”에 어느 정도 빛지고 있다(114-120).

건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 신의 섭리를 손쉽게 끌어들이려는 입장을 지적 대상으로 본다. 그는 역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좌우하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지한 역사가의 입장과는 조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이 점은 일견 하나님 원인론적 역사관을 펼치는 성경의 역사의식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경은 하나님 원인론으로 불릴 정도로 단일한 원칙을 갖고 역사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는 하나님 원인론적 역사 서술에 대하여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첫째, 법칙이나 원리에 기반한 역사 연구가 결정론적인 역사 이해로 귀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원인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는 역사는 무대에서 하나님 원인론적 해석들을 추방하려고 하는 현대의 실증주의 역사가들과 궤를 같이 한다. 하나님 원인론에 대한 호소가 사회적 원인론들에 대한 철저한 탐구를 가로막는 지적 대상으로 돌변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학적 입장을 견지한 그리스도인 역사가들은 에드워드 카가 만들어 놓은 학문의 운동장에 참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하나님 원인론적인 역사 이해가 사회과학적인 역사인식의 엄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실증주의적 역사이해와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원인론적 역사이해는 실증주의 역사가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차원, 즉 자기추궁적 예언자 역사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양자의 대화에 유익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에는 역사 내재적인 인간세력들, 동기들, 이해관계들, 기타 우발적 요인들 외에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겨레의 역사도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예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만민의 역사를 주재하시는 범례들을 솔하게 보여주셨다. 구약성경의 선민사에 나타난 구원과 심판의 범례가 우리 나라의 역사 해석에 적용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다.⁴⁶⁾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되 이스라엘은 좀 더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께

46) 1927년부터 시작된 함석헌의 <성서조선> 연재 칼럼은 <뜻으로 본 한국역사>로 발전되었다.

속한 백성이다(출 19:5-6).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의 일방적인 계시로 알아가고 믿어갈 때, 열방들은 자연계시와 종교적 추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귀납적인 길을 걸어갔다(행 17:2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듯이, 아람 족속을 키르(Kir) 지방에서 올라와 자신들의 기업을 얻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속적인 블레셋 족속도 갑돌(크레타)에서 올라가 가나안 해변에 거주하게 하셨다(암 9:7).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축출하고 기업의 땅을 얻듯이 모압, 에돔, 암몬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선사받았다(신 2:8-2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복판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듯이, 이스라엘과 멀리 혹은 가까이 접경 중인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두로, 시돈, 아라비아, 아람, 이집트, 시돈, 앗수르, 바벨론, 페르샤의 역사에도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일관된 계획을 가지시고 이집트의 역사 변혁에도 깊이 관여하신다(사 19장). 하나님은 아람의 왕조 교체에도 관여하시고(왕상 19장-왕하 3장), 앗수르의 궁중 쿠데타에도 관여하신다(사 39장).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조국과 접경한 잔인무도한 제국들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었다. 이사야에 의하면 두로의 몰락과 홍기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 관철이요(23장), 모압과 암몬의 멸망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일어난 일이다(사 15-16장). 자신의 백성을 돌보지 않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국제적 정의를 파기한 나라, 무도한 지배와 압제를 일삼으며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나라,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건전한 미풍 약속을 파괴하며 음란과 극악무도한 우상숭배에 빠진 나라, 민족, 성읍은 다 멸망당했다(단 2장과 5장). 가난한 자들을 박대하고 억압하고 성적으로 지극히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는 재기불능의 수준으로 멸망당했다(창 18-19장). 다니엘서 2장에 따르면 공평과 정의, 인애와 자비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는 열국들과 제국들의 멸망은 필연적이다.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시 89:11-14)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나라들과 왕조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정의와 공평의 양을 측량하여 그 무게가 충분하지 않을 때

그 나라와 왕조의 연대를 짧게 단축시켜서 나라를 나눠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다(단 5장).

이처럼 구약은 선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만민의 역사를 주관하는 원칙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 원인론적 역사관이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역사적 격변, 흥망성쇠의 원동력으로 고백된다. 결국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혹은 세계사적인 심판(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었다. 마틴 노트(Martin Noth)는 이러한 예언자들의 역사신학적인 모토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예언자들은 그들의 동시대적 사건들을 보편적 관점으로 해석한 최초의 역사가들이었다. 그들은 과거를 뒤돌아보는 식으로 설명하지도 않았고, 미래 사건의 일반적 향방에 대해서 막연하게 예언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당대의 사건들 속에서 거룩한 계획이 작동하고 있음을 감지하였다.⁴⁷⁾

예언자들은 언약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약위반과 언약충실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존재기반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율법(시나이 언약과 다윗 언약으로 신권통치 이념의 상징)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를 고발하는 관점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적 요구(십계명과 기타 부대 율법-하나님 전심 전폭 사랑, 자기 몸처럼 이웃 사랑[공평과 정의])를 준행하지 못하여 몰락에 처한 자신들의 조국을 규탄하고 멸망과 몰락 너머의 미래에 실현될 하나님의 은혜와 갱생 약속을 선포하였다. 예언자들은 단지 국가 멸망의 책임을 강대국이나 외국 침략군의 공격에 돌리지 않고, 공평과 정의의 원칙을 어기고 공동체 구성원들 중 약한 자들을 극도로 압제하여 공동체 소속감을 박탈해 버릴 정도로 잔혹한 지배계층과 중추적인 민족 구성원들의 타락과 부패에서 찾았다. 여기서 책임 추궁의 대상

47) Martin Noth, *The History of Israel* (Edinburgh: T&T Clark, 1958), 256.

이 되는 민족공동체, 즉 계약공동체의 구성원은 땅을 가진 평민계층 이상의 구성원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자유농민들, 즉 여호수아 시대부터 야웨의 선물을 기업으로 받은 농민들이 하나님 앞에 계약위반의 책임을 추궁받는 주체들이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온 사회적 정치적 총체부패의 우선적 책임을 이런 중상류층 이상 계약공동체 구성원들에게서 찾았다. 예언자들은 ‘국민’들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들이나 ‘백성’이라는 통칭 개념에 의거해 민족구성원들 모두의 죄책을 등비례적으로 추궁하지 않고 오히려 장로들, 재판관들, 궁중 관리들, 왕들, 지주들, 땅을 가진 자유농민들, 제사장, 예언자들, 지혜의 서기관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들에게 민족공동체의 죄책을 전가시키며 그들에게 엄정한 책임추궁을 시도했다. 당연히 예언자들은 자신들도 이 책임추궁을 당하는 지배층의 일원이라는 자의식을 가졌다. 이런 자기비판적 관점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닥친 재난과 역사적 격변을 해석했다.

즉 예언자적 역사해석은 한 나라나 왕조의 몰락과 멸망을 내인론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다. 예언자적 역사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다림줄에서 너무나 절망적으로 기울어져 위태롭게 된 건축물은 파괴되어야 한다. 이 역사관에 따르면 한 나라와 왕조의 멸망은 낡고 모순에 찬 앙시앵레짐의 장엄한 해체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몰락이나 멸망은 우발적인 상황, 즉 때마다 일어난 강대국 혹은 패권주의적인 세계정복 전략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왕국 내에 누적된 불의, 불법, 반(反)공동체적 죄악이 임계점에 도달해서 생긴 모순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유다나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와서 그것들을 각각 정복하기 전에 이미 계약공동체적인 결속감이 파괴되어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근세조선의 멸망도, 공평과 정의의 총량 결여 때문에 멸망한다고 보는 다니엘서 5장 25절의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mene mene tekkel uparsin=“God has numbered the days of your reign and brought it to an end”)의 해석학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와서 정복하기 전에 이미 공동체의 자기결속력, 즉 공평과 정의의 토대가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예언자들은 국가적 재난의 원인을 강대국의 출현에서가 아

나라 공평과 정의를 배반함으로써 공동체 해체를 초래한 지배층의 죄악에서 찾았다.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민족이 멸망당하는 마지막 단계는 사회적 연대와 신뢰, 우정과 동포애의 파산이다. 《매천야록》을 쓴 황현이 남긴 글은 기미독립선언서와 비교해 볼 때 예언자적 역사이해에 접근한다. 황현에 따르면, 일제의 한 일병탄이 있기 100여 년 전부터 조선은 형제적 동포애가 거의 무너진 사회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헬조선이 되었다. 다음은 가난한 헬조선 동포가 자신을 노예로 사달라고 애원하는 <자매문기>(自賣文記)의 일부다.⁴⁸⁾

1. 이 몸은 입에 풀칠을 할 수 없을 만큼 집안이 애육하여 굶어죽고 얼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열두 살 먹은 여식 분절이를 죽전동 사는 김귀일에게 고공비로 넘겨주니 ... 분절이가 나중에 낳게 되는 아이들까지 길이길이 고공노비로 삼도록 다 짐을 두노라. - 영조 7년 1731년 정월 한영이 김귀일에게 자매(自賣).

2. 이 몸은 부모와 더불어 상전택 윗대부터 내려오는 종이다. ... 어미 금분이 죽어 방에 누웠으나 장사지낼 해자가 없다. 그래서 이 몸 처인 업이와 업이가 낳게 될 아이들을 팔고자 하노라. - 순조 32년 1832년 9월 양반택 세습노 정정옥이 서른 살 된 아내 업이와 그 전후 소생을 돈 8냥과 벼 1섬을 받고 홍주서(주서는 승정원 예하 정7품 벼슬)에서 파는 문서.

3. 이 몸은 일흔 살 먹은 늙은 아버지가 얼어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나 공사채를 막론하고 돈을 변통할 길이 없으므로 처와 여식 하나와 그들이 앞으로 낳게 될 아이들까지 종으로 팔고자 하노라. - 철종 2년 1851년 11월 4일 박재천이 흉년을 맞아 70세 먹은

48) 김성동, "망나니, 철갈구리, 금송아지 그리고 농투산이," 녹색평론, 107(2009년 7-8월), 117-127. 매천 황현의 《매천야록》에 실린 글 <오하기문>(梧下記文)에서 민씨 외척 3인의 죄상 고발기록을 보고 김성동이 풀어 썼다.

늙은 아버지가 거의 얼어죽을 지경에 돈 마련할 길이 없어 처와 딸을 이선달이라는 양반에게 파는 문서.

《매천야록》은 독립선언서가 주변적으로 언급한 자기책려적인 성찰을 훨씬 더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다. 매천 황현은 이런 조선의 붕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려고 한일병탄 소식을 듣고 자진(自盡)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예언자적 자기추궁이나 자기책려가 결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선언서는 다른 의미의 신학적 성찰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연법을 전제하며 직선적으로 진보하는 종말론적 역사관을 피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메시아적 평화시대를 회구하는 예언적 기투성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강권과 폭력에 의한 인간의 타자 지배가 하늘의 명령에 어긋나며 반드시 전복될 수밖에 없는 역천(逆天)패도임을 확신하며 민족양심, 일본양심, 인류양심에 호소하고 부르짖는다. 이 독립과 자유를 부르는 외침은 하나님의 관심을 유발한다.

3. 3.1운동의 구속사적 의미-‘고난받는 민중의 부르짖음 중심의 역사 이해’

지난 10여년(2008-2017년) 동안 우리 사회는 근현대사 교과서 파동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가 출범할 때부터 일어난 고등학교 근현대사 국사교과서 논쟁이 결국 검인정 교과서 쓴 세 곳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이 파동은 박근혜 정권(2013-2017년 3월) 시절에 격화되어 근현대사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고 강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국사논쟁이 촉발되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정부 때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쟁점의 핵심은, ‘일제하 독립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이영훈, 이일영, 박지향, 김철 등이 주도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근대현대사 책들은 일제독립운동사보다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의 역사가 더 중

요하며, 1945년 8월 15일보다 1948년 8월 15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⁴⁹⁾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8.15는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경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8.15 해방이 일제에 대한 독립운동의 결과 얻어낸 성과가 아니라 미군의 승전, 좀 더 정확하게는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본다. 한국 독립은 완전히 우발적인 국제질서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일제하의 독립운동을 평가절하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제하에서 한반도가 근대화됐다고 보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창한다.⁵⁰⁾ 이영훈은 ‘일제의 조선지배시기는 민족정기의 말살기도 아니고 민족경제자원의 수탈기도 아니며, 오히려 현대 한국의 비약적 자본주의 국가로의 성장을 준비한 의미있는 시기였다. 일제 통치시대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반조성과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 무역의 성장과 농업의 개발이 일어나는 시기였다’고 주장한다.⁵¹⁾

이런 역사인식은 지난 30여년에 걸친 민주화 운동이 가져다 준 역사 이해를 정면으로 왜곡한다. 냉전 이데올로기와 반공이념이 지배적이었던 70년대 중반까지도, 8.15해방은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과 국외에서의 임시정부 계열의 독립운동, 그리고 국내의 민족주의 독립운동이 함께 이룬 ‘공동의 역사적 성취’로 간주되었다. 이런 인식은 남한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미국의 기득권을 용인하면서 남한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국제정치적 입장을 절충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같은 ‘8.15 해방관’은 일제시대에 대한

49) 박지향 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서울: 책세상, 2006). 이 책은 민족주의적 국사이해, 좌파적 역사관을 반박하고 있으며 대체로 일제식민지 시대를 항일독립투쟁시기로 보는 관점이 편협하다고 본다. 일제의 식민지 조선과 현재 우리 나라 사이의 경제적 연속성을 강조한다.

50) 뉴라이트 계열의 독립운동사 폄하 등 역사왜곡에 대한 간결한 반박을 보려면, 심용환, 『역사전쟁』(서울: 생각정원, 2015), 100-166을 참조하라.

51) 이영훈, 『한국경제사 I』, 『한국경제사 II』(서울: 일조각, 2016).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서유럽에서 발생한 근대문명이 이식되는 대전환의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일본이 이식한 근대 문명을 이어받아 건립된 국가다”(I권 머리말). “일본이 동화의 목적으로 실행한 제도의 변혁은 조선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온전하게 이식했다.....그 위에서 구축된 동아시아자본주의의 거대한 경제적 순환은 조선에서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견인했다”(II권, 39). “조선왕조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승만을 매개로 해 연속성을 가진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1392년 조선왕조의 개창 이래 오랫동안 한국인을 포섭해 온 성리학을 대신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외래 이념이 한국인의 정치·사회생활을 통합하는 새로운 원리로 자리 잡는 문명사적 대전환이었다”(II권 302).

어떤 긍정적 해석도 정당화해 줄 수 없었다.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수립하고 1인 장기집권을 획책하자, 1970년대 중반부터 유신독재체제의 청산을 통한 민주정권의 수립과 민족분단 극복이라는 민족사적 과제가 국민적 의제로 부각되었다.⁵²⁾

더 나아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의 발전과 역사학에서의 사회주의 운동 재평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그 결과 우리 거리의 역사 발전의 중심 주체로서 '민중'이 부각되기 시작되었다. 특히 일제 강점 시대의 사회 경제적 조건 속에서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세력의 항일 독립운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민중은 일본 제국주의 대(對) 식민지 민중이라는 식민지 사회의 기본 모순구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현실적인 변혁주체였고, 민족해방운동의 주력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때부터 8.15해방의 주체는 미국과 소련 등 연합군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체제가 만들어 낸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질곡 속에서 그것을 타파하려고 몸을 던져왔던 민중과 그들에 의한 노동자, 농민운동 등 대중운동으로 인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역사관을 뛰어넘는 북한식 인민중심의 항일투쟁론이 남한 역사학계에 어느 정도 유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우파진영은 이 변화를 과장한다. 전교조, 상대적인 진보진영 모두를 좌경용공이라고 비난하며 심지어 종북좌파라고 낙인찍는다. 확실히 일제독립투쟁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민중' 중심의 역사이해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게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친북좌경 용공의 발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에 대한 확신에 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민중 중심'의 항일독립투쟁사 인식은 친북적인 입장에 동조했다기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적 항일독립투쟁사 인식을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북한과의 대화를 타개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것은 3.1운동이 남긴 미완의 과업인 남북화해, 민족화

52) 7.4남북선언 이후 북한과의 정통성 논쟁에서 이기려고 박정희가 역설적으로 강조한 상해임정 시대가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더 진지하게 복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해라는 대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된 움직임이기도 했다.

1) 독립운동의 성과를 훼손하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그런데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인식은 이런 한 세대에 걸친 민주화운동이 일군 역사이해를 일거에 뒤엎고 해방운동, 항일독립운동보다 1948년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건국운동에 무게중심을 옮겨놓는다. 이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범통을 이었다기보다는 1948년 헌법에 의해 새롭게 탄생되었고 1948년 5·10 남한단독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비로소 ‘건국’됐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만열이 지적하듯이 이런 인식은 1948년 정부 수립주체들의 역사인식과도 정면으로 상충된다. 1948년 5월31일 제헌국회가 개원되었을 때 국회의장 이승만은 국회 개원식 축사에서 “기미년 3월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였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한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되는 정부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라고 하면서, 민국 29년 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민국연호를 기미년에서 기산(起算)하여 ‘대한민국 30년’에 정부수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이만열, 경향신문, 2008년 6월 13일). 이때 제정된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천명했다. 제헌국회의원들은 당시 대한민국이 1919년의 대한민국을 계승, 재건한다는 역사인식을 분명히 했다. 그들에게는 그해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 아니라 ‘정부수립’을 선포하는 날이었다.

이런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 독립운동 유관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역시 75개 단체가 참여한 성명서를 통해 2008년 8월 7일에,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라며, “일제 침탈에 면죄부를 주는 ‘건국 60년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정기념회는

지난 10여년간 우과진영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자는 요청에 대해서도 “이는 일제강점 36년간 광복을 위해 피를 흘렸던 애국선열들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투쟁 역사를 실증시키고 일제의 침탈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질시키고 국제법상의 지위와 권리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성경적 역사관으로 볼 때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이해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일제하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정의와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압제받는 민중의 아우성을 정당한 역사발전의 추동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역사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지배력이 신장되고 각각의 개인이 누리는 자유와 평등이 확장되며,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이 신장되는 것을 ‘역사의 진보’라고 보는 데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⁵³⁾ 그런데 이 역사의 진보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19세기 영국 역사가 로드 액턴(John Dalberg-Acton)도 “폭력의 지배와 항상 존재하는 악의 지배에 저항하기 위하여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던 약자들의 결집된 노력”이 역사발전의 추동력이라고 규정한다.⁵⁴⁾ 무엇보다도 성경은 노예들의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명시적 개입과 묵시적 관심이 작동한다고 말한다.

2) 3.1운동, 하나님께 사무치는 거대한 몸기도

그렇다면 일제하의 기미독립만세운동과 같은 민중적 아우성의 가치는 무엇일까? 독립과 자유를 위한 조선민중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갖는 것일까? 구약성서는 부르짖음(차아크, 자아크)은 하나님의 역사개입을 유도하거나 촉발시키는 통로라고 증언한다. 성경에서 최초의 부르짖음은

53) 카, 『역사란 무엇인가』, 165-198. 카는 액턴의 말을 빌려 역사의 진보를 자유에로의 진보, 혹은 자유의 이해를 향한 진보라고 본다(특히 174).

54) 카, 『역사란 무엇인가』, 174(John Dalberg-Acton, *Lectures on History*[London et al.: McMillan, 1906], 51 재인용).

형 카인에게 들판에서 살해되어 암매장된 아벨의 피울음이다. 창세기 4장 10절(“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은 억울하게 살해되어 암매장된 피살자들의 피는 하나님 귀에 아우성으로 타전된다는 것을 밝혀 준다. 소돔과 고모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내지른 부르짖음도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 소돔성은 가난한 자들의 아우성이 가득 찬 성읍이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의 피눈물을 짜낸 피로 건축된 성읍이라고 비난당하는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해진다(겔 16:49; 사 1:9-10). 심판을 강청하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으로 잔인무도한 소돔과 고모라는 물론 예루살렘도 멸망당했다.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의 혹독한 간역자와 고된 강제노동으로 인해 탄식하고 부르짖었다(출 2:23-24).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우고에 응답하셨다. 하늘까지 상달된 억울한 사연은 하나님의 신적 방문(divine visitations)을 초래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은 히브리 노예들을 압제하고 유린한 애굽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방문이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초래된 하나님의 심판,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아우성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 묘사된다. 사사기에서 부르짖음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40여 년간 계속된 이방 압제의 학정을 그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초래하는 사건을 창조하였다. 솔로몬 제국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된 이스라엘의 자유농민들이 탄식과 부르짖음을 쏟아놓자, 실로의 눈 먼 예언자 아히야는 이 민중적인 아우성을 혁명을 발진시키는 연료로 사용했다. 르호보암 압제정치에 대한 여로보암의 반역을 신적으로 재가하였던 것이다(왕상 12:15).

70여 년간 바벨론 포로들의 포로생활은 부르짖음의 대합창이었다. 바벨론 포로들의 부르짖음이나 아우성은 이사야 13-14장, 40-55장이나 예레미야, 에스겔 등에 잘 나와 있다(단 9장; 스 9장; 느 9장). 바벨론 유배가 70년 만에 종식된 것은 포로들의 도덕적 개선이나 종교적 정화나 갱신이 70년 만에 이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70여년에 걸친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이

었다. 바벨론 포로들의 아우성이 마침내 하늘에 사무쳤을 때 하나님께서 해방자 고레스를 파송하셨다. 도덕적인 개선이나 종교적 정화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뜻을 진취시키는 모멘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Abraham J. Heschel)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이 악과 고난, 죄와 비인간화의 억압 아래 유린당할 때 개입하시는 관여적 열정(pathos)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⁵⁵⁾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만 구원적 개입을 하시는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간섭이 작동하는 과정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만방 백성의 역사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애굽 백성이 이방 압제자에게 시달려 살라달라고 아우성칠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사야 19장 20절은 애굽 사람들의 부르짖음에도 구원자를 보내 주심으로 응답하셨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고(왕하 5:1), 굶주려 죽는 만민을 살리려 요셉의 곡식창고를 열어 구원하셨다(창 47:13-26). 세계만민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적 관여를 숭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증언하고 있다. 죽음에 내몰린 민중들의 지속적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제의적 효력을 가진 성례전이다. 하나님은 교황이나 사제의 기도보다 가난한 자들, 압제당하는 자, 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을 훨씬 더 예민하게 지각하시고 민첩하게 경청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그런 점에서 일제하 36년간의 조선민중의 독립운동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부르짖음의 성례로 간주될 수 있다. 일제하의 우리 겨레는 숙명론에 빠져 역사의 도전을 피해가지 않았다. 동학혁명, 의병운동, 그리고 1919년 기미 3.1운동, 1920년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항일 운동, 해외독립선열들의 독립운동은 통해 자유와 해방, 평화의 인간존엄의 가치와 대립하는 악의 생명침탈에 대한 집요하고 대담한 부르짖음이었다. 일제하의 독립운동은 제국주의적인 인권 유린

55)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 『예언자들』, 이현주 옮김(서울: 삼인, 2004), 351-384. 원제는 Abraham Joshua Heschel, *The Prophets* (New York: Harper & Row, 1962).

과 탐욕과 압제에 대항하는 보편적인 인권운동이었고,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거대한 몸기도였다. 36년만의 독립은 우리 겨레의 도덕성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부르짖는 힘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깊고 뿌리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성례적 행위다. 일제하의 독립운동을 통한 우리 민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사무치는 성례적인 기도운동이었다. 이런 누적된 부르짖음을 표현했던 독립운동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방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 사무쳐 올라가야 할 부르짖음이 남아 있음을, 독립운동의 선열들이 우리 시대에도 부르짖을 수고를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운동에 참여한다. 이것이 단지 외부의 '식민지 제국주의'를 향한 저항의 부르짖음으로만 머물지 않고 '내 안에 깊게 서식하고 있는 탐욕과 타자 노예화, 가난한 이웃을 학대하는 무자비와 잔혹한 조선총독적인 반인륜성'을 경계하는 각성의 부르짖음으로 승화될 때 더더욱 큰 신학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미독립만세운동 사건 자체만 보지 않고 그것의 중간정착지인 8.15해방까지 연장시켜 생각해 보면 1919년-1945년의 부르짖음의 시대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지가 드러난 역사 혹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심이 견인한 역사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민중의 피울음과 연동되어 작동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야 기독교적 역사이해와 사회과학적 이해 사이에 대화가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적 역사이해는 민중배제적인 형이상학으로 전락될 수 있다.

4. 결론

우리는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세계사의 합법칙적(合法的) 발전 과정의 일환으로 조명할 수도 있고, 우리 민족사의 면면한 민족운동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초월적인 주관자로서뿐

만 아니라, 역사(歷史)에 깊숙이 참여하는 내재적(內在的) 참여자로서의 하나님의 구속의지라는 맥락에서도 3·1운동의 의의를 성찰해 볼 수 있다. 3·1운동은 단순히 일본이라는 이민족(異民族) 국가의 한국 지배(支配)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동료인간(人間)을 압제하고 약탈하는 삶의 방식에 총체적 거부였다. 따라서 3·1운동은 1919년 한국이라는 시공간의 특수상황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역사의 본질을 밝힌 사건이다. 성경은 역사가 하나님나라를 세우려는 절대 주권적 의지가 관철되는 현장이라고 보고 있다(사 46:10).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계시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사회에 실현하려는 가치와 미덕을 인간 스스로 발견하고 추구하는 현장임을 깨달을 수 있다. “역사는 하나님이 도전받으시는 장이며 정의가 패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질서와 계획이라는 합리적 범주에 들어맞거나 그 범주로 번역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계시되는 순간이 있을 뿐이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힘은 과정으로서 계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비상한 사건들 속에서 발생한다. 이루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관심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분의 힘이 부재하는 수는 있으나 그분의 관심은 늘 현재한다.”⁵⁶⁾

성경이 말하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적 관심은 인간을 모든 우상숭배로 해방시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방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항상 압제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며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동선을 계시해 주셨다(시 103:6-7). 하나님은 파라오의 하나님이 아니라, 피압박 노예대주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었고, 기필코 파라오의 압제에서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키고 마시는 해방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해방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사 19:20-22; 왕하 5:1; 14:27).

56) 헤셀, 위의 책, 274-275.

3·1운동이 하나님에 의한 인간(人間)해방의 역사가 되는 이유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 16명이 서명하고, 많은 기독교회가 만세운동에 참여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1919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일련의 역사가 하나님의 출애굽 해방역사를 범례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3·1운동이 하나님의 구속사로 간주될 수 있다. 출애굽기는 역사가 하나님에 의한 인간해방의 과정임을 드러내 준다. 교회(教會)가 생기기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모든 거짓된 신적 권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해방자이셨다. 모든 역사는 수많은 사건들의 무의미한 계기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거짓된 힘(權力)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의미있고 질서있는 '해방운동'이다. 3·1운동이 단순히 아시아의 한 민족 해방이라는 주변적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사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결국 3·1운동은 과거사를 경축하는 국경일로 표백되고 정지해 버린 시간일 수 없다. 제국주의적 착취가 있는 곳은 언제나 3·1운동은 영원히 '살아있는 현재'적 운동이다.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에 성공하여 가나안 복지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전하게 정착했다 해도, 그곳에 파라오 님은 착취자가 존재하는 한 가나안 복지 또는 탈출대상 애굽으로 전락해버린다. 3·1운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인간 위에 군림하는 모든 반신적 권력(反神的 權力)을 거부하는 구속사적 운동의 한 지류이다.

5. 참고문헌

권보드래, “만세의 유토피아”, 『한국학연구』38(2015년 8월), 193-226.

김구, 『백범일지』, 서울: 돌베개, 1997.

김성동, “망나니, 철갈구리, 금송아지 그리고 농투산이”, 『녹색평론』107(2009년 7-8월), 117-127.

김승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121(2018

년 4월), 1-2.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창순, “3·1운동에 대한 역사인식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가”, 『北韓』 363(2002년 3월), 24-29.

Noth, Martin, *The History of Israel*, Edinburgh: T&T Clark, 1958.

박지향 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서울: 책세상, 2006.

———,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 서울: 책세상, 2006.

우상혁, “역사를 품은 기도:느헤미야 9장 5b-37절”, 『구약논단』 24/2(2018년 6월), 118-142.

윤경로, “3·1독립만세운동의 역사성과 교회의 역할 - 3·1절 99주년을 기념하며 -”, 『평통기연-한교총 한국교회 3.1절 99주년 기념예배와 심포지엄 (2018년 3월1일)』, 1-12.

원진희, “야웨의 구원사와 이스라엘의 선택(수 24장)”, 『구약논단』 1(2005년 4월), 32-55.

이기백, 『한국사 신론』, 서울: 일조각, 2014.

이영록, “헌법에서 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 『법학논총(法學論叢)』 24/1(2017), 3-24.

이윤상, 『3.1운동의 배경과 독립선언』, 천안: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이정 박헌영 편집편집위원회 편, 『이정 박헌영 전집』 2권, 서울: 박헌영편집위원회, 1998.

최태성, 『한국사』, 과주: 푸른들녘, 2018.

카, E. H., 『역사란 무엇인가』, 김택현 옮김, 서울: 까치, 1997. 원제는 Edward H. Carr, *What is History?*(Cambridge: Univ. of Cambridge Press, 1961).

하루키, 와다, “한일병합 100년...2라운드 싸움은 지금부터”(2010년 9월 7일 경향신문).

하조니, 요람, 『구약성서로 철학하기』, 김구원 옮김, 서울: 홍성사, 2016. 원

www.kci.go.kr

- 제는 Yoram Hazony, *The Philosophy of Hebrew Scriptur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한민족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손병희 심문조서 (3회)”, 『한민족독립운동사 사료집』,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6.
- 한승훈,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의 불완전한 정립과 균열”, 『역사와 현실』 (2018년 6월), 209-243.
- 헤셸, 아브라함 요수아, 『예언자들』, 이현주 옮김, 서울: 삼인, 2004. 원제는 Abraham Joshua Heschel, *The Prophets*(New York: Harper & Row, 1962).
- Pannenberg, Volfhart, *Revelation as History* (trans. David Granskou;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9).
- Surburg, Raymond E., “An Evaluation of Heilsgechichte Theolog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ir Implications”, *The Springfielder* 33/2(1969), 4-23.
- von Rad, Gerhard, *Old Testament Theology* vol. 1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2).

검색어

기미독립선언서

3·1운동

구속사

상해 임시정부

민족주의

자가 성취적 예언

한국현대사에 대한 뉴라이트 역사관

The Redemptive-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Hae-Kwon Kim, Ph.D.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oongs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plore the redemptive-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Sam-il Movement on March 1, 1919, on its 100th anniversary. It argues that the Sam-il Movement is a part of God's saving activities for the oppressed people, and that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struggle that lasted for 27 years was a body prayer analogous to "the outcry of the Hebrew slaves" who longed for liberation from the Egyptian bondage. This paper summarizes the significance of the Sam-il Movement and its impact on the 27-year long resistances against Japan in three aspects. The greatest significance lies in its contribution to the emerg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where the people replaced the king or emperor in ruling the country. In addition, the Sam-il Movement was the

www.kci.go.kr

forefront of the anti-imperialist union that was first realized in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s during the following 27 years. Finally, while the Sam-il Independence movement failed in the short term, it has become a 'canon' to secure the legitimacy and sustainability of the anti-Japanese movements that continued for 27 years. The reason why this paper regards the 36-year long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s initiated by the Sam-il Movement as a redemptive history led by God's saving will and interest, is that they were carried out in the same pattern of the saving activities of God who intervenes in human history (the situation of oppression → outcry for liberation → redemption → renewal of the covenant). In this respect, this paper contradicts the understanding of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at has been espoused by the New Rightists, which undermines the 36-year long independence struggles.

Keywords

the Kimi-Year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March the first Independence Movement

the redemptive history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self-fulfilling prophecy

the New Rightists' view of the modern history of Korea

- 투고일: 2019년 1월 23일
- 심사일: 2019년 2월 3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2월 3일

www.kci.go.kr